

“자고 나면 억대가 뛰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광주 아파트 가격 폭등에 국민청원 잇따라

“자고 나면 몇억씩 오르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도대체 투기를 막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광주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하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부동산 급등에 따른 정부·지자체의 무신경함과 단속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월급으로는 치솟는 전세값도 감당하기 어려워 집값 상승 부채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촉구 집중 모니터링 ‘미흡’...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구도

◇“집값 너무하네요...왜 관리 안해주시는거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일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급등에 따른 청원글 20여건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 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함을 질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청원인은 ‘광주 부동산 폭등으로 광주를 엑소더스 해야할 지경’이라는 글에서 “남구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간 매년 1억 정도씩 상승해왔다. 지난 1년 간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남편 월급만 보면 중산층 이상인데, 남편 월급만 모아서도 치솟는 전세값도 감당이 어려워 다음 전세 재계약 시에는 광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다운계약, 차명거래는 일상화 된 일이다. 다운계약, 차명거래 안한다고 하면 ‘남편이 고위 공직자 나갈

려고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이상한 나라”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선정 한 이후에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다른 청원인은 몇 달 새 급등한 광주 남구와 광산구 등을 들어 “남구·광산구는 모니터링만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 시킨 이유가 무엇이나”고 따졌다. “19평이 4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빈익빈 부익부 가중시키는, 정말 할말이 없다”는 글도 올라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보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연주주공아파트 전용면적 49.22㎡(3층)의 경우 지난달 3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59.3㎡(2층)는 7월에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28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광주 아파트 값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폭등,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불과 2달 전 아파트 값과 현재 아파트 값 시세 차가 5000만원이 넘는다. 정부에서 광주 아파트 값 좀 제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남구 집값이 하늘 높이 오르고 치솟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 모니터링만 하지 말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 “광주는 지금 난리도 아니다. 집이 없거나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탈려는 사람들은 갑작스런 폭등에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광주는 단속하지 않느냐”, “몇 달 새 2-3억이 올라버리면 저 같은 서민은 어찌합니까. 왜 괜한 해주시고요. 집값 해결부터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요청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귀 막고 모른척 한다”는 등의 글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실정이다.

일부 청원인들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왜곡된 집값 상승을 부추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청원인은 “실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의무화된 반면, 해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해제 신고도 의무화해 시민들이 정확한 실거래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제 신고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거래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꺾일 줄 모르는 집값 보니...=3일 한국감정원의 ‘8월 주택가격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0.29% 올랐다. 광산구(0.58%), 남구(0.45%)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에 견줘 2.25% 상승한 것으로 서울(5.44%), 대구(2.80%) 등을 제외하면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보면 급등 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광주시 동구 학동 ‘무등산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6월 4억원(28층)에 거래됐다 한 달만에 5억7000만원(19층), 6억원(21층)으로 거래가격이 뛰었다. 한 달만에 갑자기 2억원 가량 뛰었는데도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거래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입주를 시작한 ‘포스코더샵’ 전용 84㎡는 5억5000만원(11층·4월)→6억3500만원(11층·6월), 6억7500만원(4층·7월)까지 뛰었다. 포스코더샵은 7월 초순 6억5800만원(13층)이던 실거래가가 10여일 만에 6억 7500(4층)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2년 전 입주한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제일파크’의 매매가격은 지난 5월 6억 8500만원(5층)에 거래된 전용 84㎡가 6월에는 6억9500만원(5층)으로 뛰었고 7월에는 7억5800만원(5층)까지 상승했다.

수완지기도 ‘광주수원대방노블랜드6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5억4000만원(16층)을 기록했다. 같은 면적으로 지난 3월 4억5700만원(8층)에 거래된 것보다 8300만원이 오르는 등 급등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7.03 (-15.85)	↑ 금리(국고채 3년) 1.92 (+0.01)
↓ 코스닥 816.84 (-0.13)	↓ 환율(USD) 1110.30 (-2.60)



한전광주전남본부, 호남대·호남대라랄라스크 ‘재생에너지 상상학교 사랑나눔 MOU’ 체결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임철원)는 지난 30일 호남대학교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호남대학교, 호남대라랄라스크와 ‘재생에너지 상상학교 사랑나눔 MOU’를 체결했다. (사진)

재생에너지 상상학교는 한전·호남대학교·호남대라랄라스크가 협업체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은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농·어촌 도서벽지지역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 사랑나눔과 상생가치 창출을 실현하며 체험형 교육을 통해 미래 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신재생에너지, 新전기모형 각 분야에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 자동차, 전도성 잉크를 주제로 미래인재 육성교육을 시행하고, 박람회 부스를 활용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 미래 에너지 산업 홍보도 진행한다. 또한, 도울의 손길이 필요한 도서벽지지역 노후 전기설비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를 돕는 봉사활동도 실시한다.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나는 새싹들의 환한 빛이 되어주는, 사랑을 전하는 본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광주지방변호사회 중소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오는 10일부터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두 기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을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광주전남 중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 매주 월요일(오후 2시~6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을 위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



회 고발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SC제일은행·KDB생명 ‘낙제점’

SC제일은행과 KDB생명,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극적 정책을 펼쳐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은행권에서는 SC제일은행이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13개 은행과 18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7개 신용카드사, 7개 저축은행, 10개 증권사를 상대로 민원건수와 처리기간, 소송건수 등 10개 항목을 따져 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10개 항목을 ‘우수-양호-보통-미흡’과 같은 형태로 4개 등급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나, 재무구조 개선 총력...올 차입금 8천억 줄여

유동성 우려가 불거졌던 아시아나 항공이 올해 8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줄이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3일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말 4조5700억원에 달하던 이 회사 차입금은 지난해 말 8656억원을 감축, 3조1914억원으로 줄었다. 7월 말(3조3319억원)과 비교해도 차입금이 1406억원 더 줄었다.

아시아나 항공은 8월 말 기준 영업활동 동으로 5122원,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등으로 5634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의 단기 차입금 비중은 50%에서 30% 수준으로 20% 인으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차입금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라고 아시아나는 밝혔다.

금융아시아나그룹 전체로도 작년 말 5조779억원이던 총 차입금은 지난달 3조9711억원으로 줄었다.

아시아나는 앞으로도 자회사 기업공개, 영구채(신증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차입금을 올해 말까지 3조원 미만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룹 전체 차입금도 3조7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시아나는 현재 ‘BBB-’에 머물러 있는 신용등급을 3분기 실적에 바탕으로 ‘BBB’나 ‘BBB+’로 한 등급 이상 상향을 추진한다.

아시아나는 “매달 차입금 감축 등 재무구조개선 실적을 발표해 회사와 그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회의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캣시트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반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목포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순천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